論 壇

大學의 自律性과 限界

金 玉 煥
(世宗大 敎育學科)

필자는 최근 大學에서 주장되고 있는 大學自律性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大學이 자칫 이러한 自律性의 本質的 意味를 잘못 이해할 경우 혼란스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가정하에 大學自律性의 限界를 摘示하고 있다.

1

최근 들어 大學街에서 高潮되고 있는 현상으로 自律性이니, 自治니 혹은 自主니 하는 등의 주장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精神은 오늘의 한국 대학뿐만 아니라 自古로 大學에서 끊임없이 요구하여 온 特權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근간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물결은 너무나 本質的인 理念을 망각하고 있는 느낌이다. 참다운 自律性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追究가 아쉽다 하겠다.

우리가 自律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어떤 正當性 없이 그저 적당한 상식선에서 행하는 것이 과연 참다운 自律일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提起되지 않을 수 없다. 自律이라는 理念은 흔히 民主國家에서 내걸고 있는 이념일 뿐만 아니라 특히 大學에서만 누리는 전유물처럼 傳受되어 왔다. 大學은 예로부터 知性의 전당이나 象牙塔 등에 비유되며 自律·自治精神의 理念을 동반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에는 獨裁가 판을 치던 舊時代의 권력에 억눌려 이들 理念의 실현이 오늘의 대학가처럼 폭발적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그 시대의 補償을 오늘에야 찾고자 하는 하나의 心理的 欲求의 발로인지는 모르나, 때로는 그 이념의 限界를 넘어서 심지어는 本質을 망각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참다운 自律, 참다운 自治 또는 참다운 民主化가 되려면 知性과 眞理를 좇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 또는 大學機關의 행동이 自律的이려면 이는 價値로운 진리의 법칙하에서 행해져야 그것이 참다운 自律性이 되고 또한 강력한 힘이 부여되는 것이다. 大學의 自律化를 악용하여 대학이 스스로 不正하고 파괴되어 드디어 그 생명까지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知性의 集合體요, 진리를 生産하는 대학이라 할 수 없다. 自律과 自治 또는 自主 등의 요구는 결코 物理的인 힘으로 대결하

는 手段으로서의 이념일 수는 없다. 또한 이들 理念은 學問硏究의 성과로 얻어지는 眞理의 範疇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成熟한 대학은 기실 이들이 運動으로 확산되거나 唱導될 수 없는 성질이다. 自律은 大學理念 具顯의 기본적 도구가 되어 의례히 宿命的으로 동반자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不可分離의 것이다. 그래서 大學에서의 모든 行爲는 知性을 바탕으로 하는 自律的 행동이어야만 한다. 이를 넘어선 行動은 放縱 내지 폭력과 결탁하기 쉬운 행동이 된다.

大學이 탄생한 이래 自律·自治精神이 마치 대학만의 專有物처럼 云謂되었던 까닭도 바로 대학이 學問硏究라는 理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중등 교육 기관과는 달리 대학에서 自律性을 더욱 高揚하는 까닭은 바로 硏究理念의 具顯으로 知識을 생산하여 그 결과로 自己統制와 調整이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限界를 넘어선 행동은 자율이 아닌 他律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일견 자유롭게 自律的인 활동만을 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高度의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한 法則이 지배하는 마치 有機體의 自律神經系統의 原理와 흡사하다 하겠다. 그 법칙에서 이탈하게 되면 심장과 胃의 기능이 마비되듯 자율성이 消滅되는 것이다.

大學에서의 自律性의 소멸은 硏究不在라는 대학의 機能喪失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찌의 탄압으로 인하여 한때 獨逸의 大學敎授들이 學問의 自由를 찾아 세계 名門大學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함은 이를 立證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원의 민주화에 대한 본질 규명도 자율성과 같은 脈絡에서 淵源한다고 볼 수 있다. 흔히들 民主主義하면 다수인의 합의와 통치를 생각하게 되고 모든 권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혹자는 민주주의의 맹점으로 무조건적인 多數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指摘하기도 한다. 실상 무조건적인 다수결의 원칙은 간혹 커다란 오류에 빠지는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해 상충된 단체 교섭과 행동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正當性도 없는데 다수인이 함께 뭉쳐 의사 결정을 강행하는 경우도 종종 經驗하는 바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本質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民主主義에 있어서의 다수결의 원칙은 知性의 結集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많은 사람들의 智慧를 모으는 衆智의 集合이 곧 민주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여기에서 衆智의 집합은 지성의 소산인 知識의 結晶體를 의미한다. 大學에서 硏究理念의 구현은 새롭고 價値있는 지식, 즉 진리를 찾는 활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민주화 과정에서는 自律·自治·自主·自由 등의 理念이 늘 수반되게 마련이다.

작금 대학가에서 宣揚되고 있는 이러한 주장들은 당연지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그 限界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명백한 것이다. 大學에 있어서 자율성은 本質을 상실한 채 편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이 얼마나 高踏的인 知性의 산물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본질을 망각한 채 自律과 民主化 운동이 주장되고 전개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學生은 물론이고 財團과 敎授團體 차원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 大學이 자율과 민주화 과정을 지성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 限界를 벗어날 때 대학 스스로가 外勢를 부르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이렇게 되면 大學은 自律은 고사하고 他律에 의하여 지배되며 學問硏究의 이념 구현은커녕 政治的 탄압의 구실을 만들어 주기 쉽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과거의 大學史에서 그 類例를 찾아보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3

이제 韓國의 대학도 반세기에 접어들고 있다. 대학사를 개관하여 볼 때 지난 날의 大學이 늘 독재에 억눌려 自律과 民主化를 定着시킬 여지가 없었고, 도리어 그것에 기생하여 大學의 不正과 非理가 橫行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民主化 과정

에서 대학에 주어진 自律性이 악용되어 非理를 초래하는 온상으로 화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원래 大學은 民主化·自律化 등을 굳이 요구할 必要가 없는 곳이다. 대학은 보다 높은 次元에서 學問을 探究하는 곳이므로 自律性은 늘 內在되어 있다. 大學이 진리와 자율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러한 非理가 움틀리 만무하다. 모름지기 대학은 外部의 감독을 초월하여 獨自的인 힘으로 眞理를 좇아 행사하는 곳이다. 이때 작용하는 힘의 기능이 참다운 自律性의 發顯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이라는 커다란 有機體는 늘 自律 속에서 숨쉬고 있어야만 한다. 이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自律을 떠난 大學은 存立 자체가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데 참다운 自律性의 限界를 넘어선 大學의 自律은 不正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학생 소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근래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격한 소요는 억압된 욕구충족의 動機論的 측면의 해석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大學이 자율성의 한계를 넘어서 초래된 結果로 知性을 상실한 自己露出에 불과하다.

大學 본래의 使命이 참다운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어야 함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대학이 自律化와 民主化 물결에 浮動하여 不正非理와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장소가 된다면 대학은 그 본질을 잃고 政治的 싸움터가 되기 쉽다. 이데올로기는 學問이라 볼 수 있기보다는 한낱 敎條主義的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眞理探究와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이를 信奉하며 이에 사로잡히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나친 이데올로기의 추종과 그에 관한 강요적 擴散은 폭력을 자아내기 쉽다. 더구나 이것의 産物은 진리가 아니므로 社會的 수용 과정에서 늘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이 마찰은 바로 自律性을 거부하는 징표로서, 이때 自律性은 바로 外的 힘의 配分上의 論理가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의 소요는 그것이 財團·敎授·學生 집단들 중 어떤 집단에서 起因된 것이든 無知의 소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는 外勢의 干涉을 大學에 대한 自律性의 侵害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순수 학문적 探究 과정이나 그것에서 비롯된 結果에 대한 대학 외부의 간섭은 명백히 學問의 自由와 大學의 自律性에 대한 침해로서 政治權力의 無知를 드러낸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韓國의 대학은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학원 비리와 不正 등에서 빚어지는 學園事態가 主宗을 이루고 있어 催淚 가스로 成長하는 大學이 되어 버렸다. 실로 한국의 大學은 일천한 傳統과 未熟한 대학으로서 밥 투정을 하는 어린아이와 흡사하다. 따라서 대학의 무분별한 自律·自主 등의 제창은 그만큼 未熟을 뜻하는 한편으로 成熟의 可能性을 기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無知한 自律性의 주장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그 限界를 넘어선 것으로 知性이 경계하여야 할 對象이다.

4

大學의 自律性은 결국 硏究理念과 직결된다. 大學의 自律性과 學問의 自由 등은 연구 이념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이다. 後者인 학문의 자유를 硏究遂行 과정에서 精神的 기능의 요소라 본다면, 前者인 자율성은 연구의 成果로 얻어진 適用 과정에서 작용하는 知的 限界를 뜻한다. 그리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은 그 機能이 상호 밀접한 關係에 있으면서도 그 한계는 뚜렷하다 하겠다. 대개 學問의 自由는 탐구 세계에서의 개인의 內的인 絶對自由, 즉 學問하는 精神과 價値自由와 孤獨한 自由를 뜻한다면, 大學의 自律性은 대학이라는 組織體 안에서의 집단적인 사고에서의 自己調整의 정신 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

敎授協議會의 조직, 교육과정의 편성, 입학과 졸업 요건 등에 걸친 學事行政上의 自律的인 결정을 대학은 요구한다. 그리하여 이런 경우 가끔 政府와 맞서 不協和音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의 자율은 언제나 學問의 自由에 대한 守護任務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探究에 대한 侵害를 받았을 때 大學의 自律은 衷情으로 이를 저지하려 한다. 敎授協議會의 중핵적 기능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大學의 自律은 학문의 자유와는 달리 團體나 機關이 외세에 대항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한편 大學의 自律性은 대학의 財政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위에서 例示한 학사 행정상의 自律性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원숙한 자율은 무엇보다도 예산상의 완전 獨立이다. 취약한 財政은 예속되기 쉬우므로 그만큼 自律性의 폭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成熟한 大學은 대학의 自治가 가능하리만큼 財政的 뒷받침이 되어 있다. 비교적 英國의 允許制度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이 學府共和國이라 불리울 만큼 獨立採算을 하고 있어 自律性의 폭이 넓다.

대체적으로 歐美大學의 理事陣의 구성은 大學運營의 成敗가 재정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大學은 지금까지 누적된 大學 非理를 개관하여 볼 때 재정 확보에 盡力한다기보다 오히려 재산 은닉을 企圖했다는 느낌마저 든다.

5

요컨대 大學의 自律性은 대학이 생겨난 이래 學問社會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특한 理念이다. 이는 研究理念의 실현으로 그 限界가 규정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大學理念 가운데 연구 이념은 가장 中核的인 것으로 다른 理念들을 創造하고 生成하는 기능적 存在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이 연구 이념과 더불어 持續的인 속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의 自律性은 대학에서 늘 要求하는 것으로 傳統을 이어 持續되며, 그 價値가 時間 속에 恒久的으로 內在되어 있다. 따라서 開放的이고 發展한 대학일수록 自律的이며 生産的이다. 그러면서도 이는 垂直的 理念의 성격을 지니므로 孤獨과 剛直을 지닌 存在로 그 限界가 研究理念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學生이나 財團 혹은 大學內에서의 그 어떠한 組織이든 간에 自律性의 남용은 대학의 未熟한 정도와 相應되기 쉽다. 이 점이 오늘날 韓國의 大學이 처한 상황으로 지난 날의 독재에 억눌려 他律에서 익혀온 자취의 '늪'이기도 하다. 이 '늪'에서 脫皮하는 길은 大學이 自律을 향유하며 探究하는 大學 본연의 姿態를 갖추는 일이다. 學生과 敎授에게는 學習의 自由와 研究의 自由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한 課題이며, 財團과 政府는 위에서 살핀 大學의 自律性의 本質에 상응하는 과감한 支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當面하고 있는 大學 風土를 변모시켜 참다운 自律性을 發顯하고, 한국의 大學이 안고 있는 劃一的인 模型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각 大學이 獨自性과 個別性을 가지고 뚜렷한 特性이 있는 大學을 志向하여야 할 것이다. *